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나의 심정과 통하고, 나의 말을 깨달아 듣게 되고,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기록하여 전하며 월명동을 개발하고 공사하듯 하면, 결국 너희 마음의 눈이 정상으로 떠져 소경을 면하게 된다.
2. 지체 장애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뇌로 전달하여 지체에 전하여도 마음만 느끼지, 행동은 못 한다. 나 예수가 머리가 되어 내 생각을 늘 네게 보내도 네가 지체 장애자같이 마음과 정신의 장애자이면 전달되지 못한다. 고로 기도하여 내 능력을 받고 고쳐야 한다. 고쳐야 내 생각을 전달받아 행할 수 있다. 고쳤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또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장애자가 되니 매일 행해야 된다.
3. 나 예수가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 듣기 거부하고 심정 상하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매일 행하여라. 나의 사랑도 관심도 공의롭고 영원하다.
4. 마음의 눈을 뜬 사명자로 내가 전한 내 말을 지켜 행하여 모두 불구의 눈도, 마음의 귀도, 혼도, 영의 몸도 고치고 건강해져라.
5. 후진하게 작동시켜 놓은 차를 운전하면 고정해 놓은 대로 평생 후진만 하게 되듯이, 마음도 올바르게 고치지 않고 행하면 연속 그 주관권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 고로 인생을 창조하고 아는 내게 배워라.
6. 오전에는 배우고 알고, 오후부터는 바로 행하여라.